행정안전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6. 12.(목) 12:00
(지 면) 2025. 6. 13.(금) 조간

여름, 에어컨·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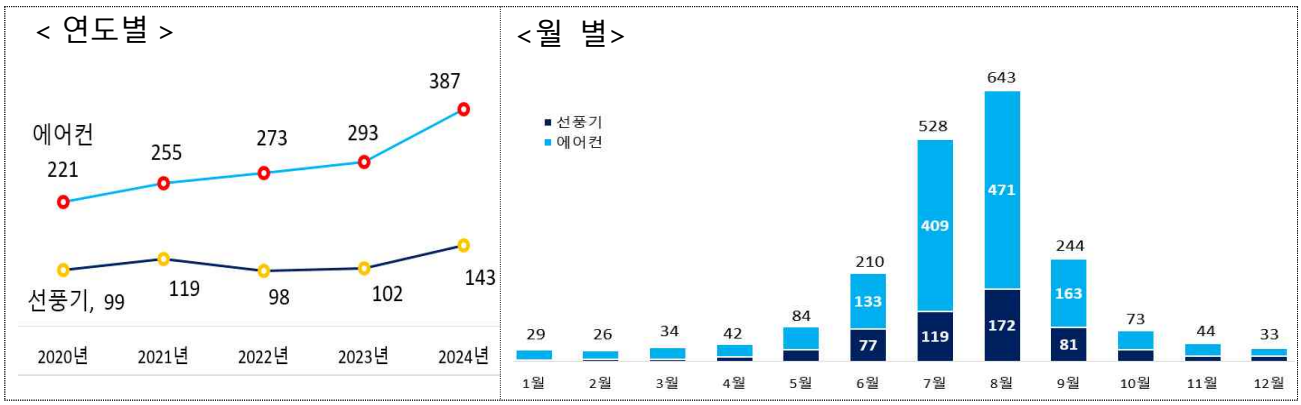
- 최근 5년간 에어컨 화재 1.8배, 선풍기 화재 1.4배 증가
- 에어컨·선풍기 사용 전 점검 철저, 사용 중에는 과열 주의

□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.

□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(한국갤럽, 2023)은 98%에 달하는 가운데, 지난 5년간(2020~ 2024)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.8배,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.4배로 늘었다.

○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(643건)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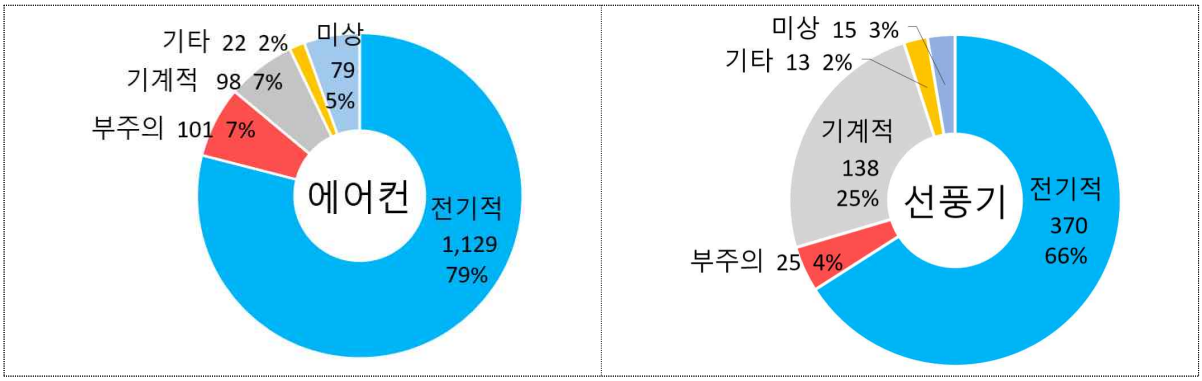
< 최근 5년간(2020~2024) 에어컨 · 선풍기 화재 현황 > (단위: 건)



[출처: 국가화재정보센터, 소방청]

○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(에어컨 79%, 선풍기 66%)이 가장 많았으며,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·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.

< 최근 5년간(2020~2024) 에어컨·선풍기 화재 원인 > (단위: 건, %)



[출처: 국가화재정보센터, 소방청]

□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.

○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,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.

- 특히,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,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.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-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,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다.

○ 선풍기는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선풍기를 끌거나 당겨 전원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.

-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, 작동 중에는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걸쳐 놓지 않는다.
-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하고,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.

○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기기의 열을 식혀주고,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한다.

□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“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냉방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, 올바른 냉방기 사용으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 (044-20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한경심 (044-205-450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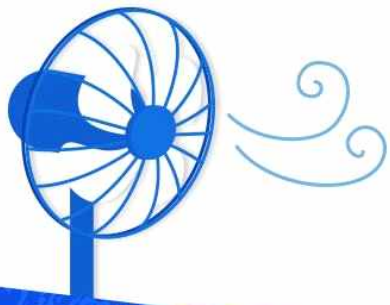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**에어컨·선풍기 화재 예방 안전수칙**



행정안전부

선풍기 화재예방 안전수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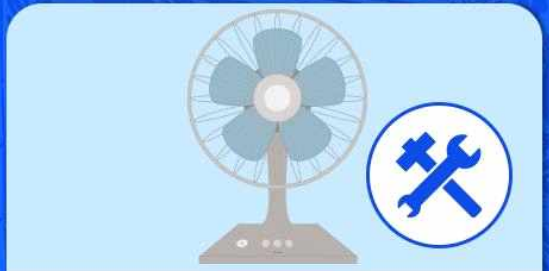
사용 전 먼지 제거 후,
소음, 냄새 등 문제 확인 후 사용



선풍기 모터 송풍구를 막지 말고
모터 부분이 뜨거우면 잠시 사용 중단



전원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하고
자리 비울 때는 전원 끄기



조작 버튼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
억지로 조작하지 말고 점검 후 사용